청년 茶문화 체험…강진으로 오세요

전남도 '체험 페스티벌' 공모 선정
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관광 결합 에듀 투어리즘 실현

MZ세대를 위한 다양한 '차(茶)' 체험프로그램이 강진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강진군은 최근 전남도가 주관하는 '청년 남도 문화관광 체험 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향 향우와 자녀, 수도권 거주 청년들이 남도 문화관광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전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을 재방문토록해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강진군은 '남도 茶文化 1번지, 茶 있고 잇는 강진 여행'을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되면 남도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해양, 생태, 문화, 음식, 숙박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레크레이션 및 특강 교육 등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지역 특화자원인 차(茶)를 활용해 ▲다도 및 강진의 차문화 강연 ▲녹차잎 따기 등 차 만들기 체험 ▲이한영 생가 일원의 도보 관광 코스 운영 등 ESG 관광 실천 ▲차 소믈리에 양성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청년 남도 문화관광 체험 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다양한 차(茶)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영 차 문화원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를 마치고 남양주로 돌아갈 당시 1년간 재배한 차와 제자들의 연구 업적을 매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됐다. 다산과의 약속을 100여 년간 이어온 이시헌의 후손 이한영은 일제 강점기 우리 전통차가 일본산으로 왜곡 유통되는 것을 보고 전통차 브랜드 '백운 옥판차'를 개발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특히, 우리 전통차에 관한 연구를 통한 이론 정립과 실험으로 지속적인 다양한 제품 개발과 상업화에 힘쓰고 있다.

김바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MZ세대 중심의 청·장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 여행상품보다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에듀 투어리즘을 실현하는 등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경찰 13년째 사랑나눔…2억여원 지원

형편 어려운 주민에 월세 지원

화순경찰(서장 고은경)이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 월세를 지원해 눈길을 끈다. 〈사진〉

화순경찰서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화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나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러한 지원은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관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사랑나눔성금, 세밑장학금, 희망나눔캠페인 명목으로 총 970여명에게 성금 2억900만원을 후원했다.

고은경 화순경찰서장은 "코로나 확산 상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화순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영농철 청년 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교육

정비·안전사고 예방법 등 실습

장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종합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장성미래농업대학 청년CEO학과에 재학 중인 젊은 농업인들이 참여했다.

교육은 관리기의 구조 및 일반정비 방법을 비롯해 두둑 성형, 비닐피복 작업 등 실습 위주로 진행돼 청년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안전교육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 유지웅 씨는 "실습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며 "관리기의 새로운 기능도 많이 알게 돼 유익했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농작업 효율 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장성군 제공〉

한편 장성군은 권역별 3개소(본소, 서부, 북부분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총 90종 796대의 임대농기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농촌경제 여건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 중이며 올해 감면 건수는 5500여 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100만원에 달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박차

89억여원 들여 자원화시설 건립

함평군이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업비 89억여(국비·융자 62억3000만원 포함)원을 투입, 월야면 계림리 일원에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전력 생산은 물론 발효된 소화액은 퇴·액비로도 자원화 할 수 있어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자원화시설은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운영되며, 일일 가축분뇨 처리량 97 t , 전기 생산량 4327kWh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현재 설계 및 시공사 공법 공모를 진행 중으로 업체 선정 후 각종 인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남평읍 강변도시 바닥분수 내달 착공

나주시 남평읍 강변도시에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분수 시설이 들어선다.

나주시는 남평강변도시 근린공원에 '바닥분수형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바닥분수는 남평 출신 천재음악가 고(故)안성현 선생이 작곡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컨셉으로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 내달 중 착공해 오는 8월 시범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공원 내 부지 200㎡에 스윙노즐, 바닥분수, 바닥미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분수 시설과 가족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덕진 나주시 산림공원과장은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바닥분수는 가족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강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 분수시설 설치와 더불어 남평월현대산 근린공원과 남평향교를 연결하는 역사순례길을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문화재단, 청년창업 교육 수강생 모집

선착순 20명…다음달 9일까지

담양군문화재단이 지역 청년(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전문가 특강 '로컬, 청년창업노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창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 제공과 청년 로컬 창업문화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청년창업 마인드 교육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 ▲지자체 및 정부창업지원 사업 차이점 ▲올바른 사업계획서 작성법 ▲로컬창업 사례를 통한 아이템 연구 ▲로컬 창업의 성공요소 등의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3일간 해동문화예술촌 세미나실 (붉은동)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dy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 기초 교육을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를 발굴·양성해 담양 로컬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